



생명

생명과 자연,
그 놀라운
사이에서

A LIFE
Life, Nature,
and the
Wonders In
Between

이동근 작가 연구

A Collection of criticisms about
LEE Dong Keun

알려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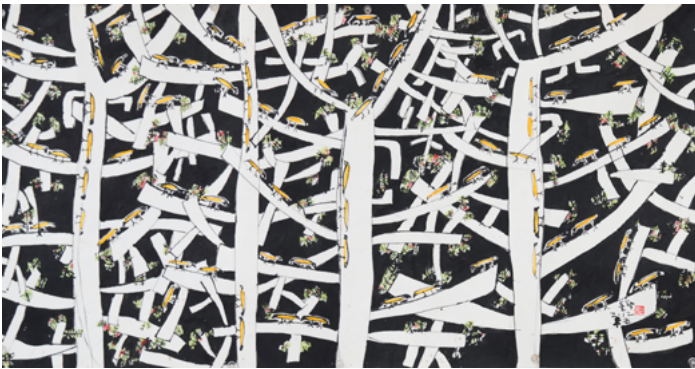
1.본 리플렛은 <생명>“생명과 자연, 그 놀라운 사이에서” 이동근 작가연구집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방대한 분량을 요약하기 위해 대표적인 책임연구자의 원고 초록을 실었습니다.

2.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다른 연구자의 원고는 브로셔와 연구집 카다로그에서 소개됩니다.

- 이동근의 '돌아온 길' 그의 최근 몇 년의 작품 감상-인단(미술평론가)
- 희망의 생명, 이동근 작품에 대한 외국 평론가의 견해-마이순 리즈크(미술사학자)
-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대화-전승훈(문화기획자)

이동근(李東根, 1951~)

화가. 호는 돌팍, 전라북도 정읍 출생. 1970년대 전북 화단이 형성된 후 1세대 작가로,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기생이다. 인상주의 화풍의 박남재, 이의주 교수의 영향으로 사생 기반의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1980년대에는 극사실주의에 몰두하여 1985년 <흰 천이 있는 정물>로 제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한다. 1980년대 말 운명적으로 제주의 자연을 접한 후부터 사실주의에서 표현주의로 나아가면서 제주의 거칠고 변덕스러운 자연의 모습을 명도 대비, 보색 대비 등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재현한다. 2008년 이후 다시 고향 정읍으로 되돌아와 미학적 형식과 주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풍경이 아닌 생명을 다루면서 회화를 기반으로 오브제 설치, 드로잉 퍼포먼스, 시인과의 협업 등으로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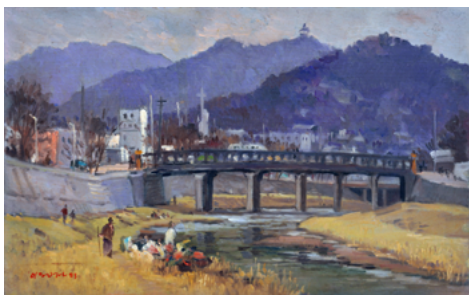
생명
500×1,200mm, 판화지 위에 아크릴, 먹 드로잉, 2012



하얀 천이 있는 정물
145.5×112.1cm, 캔버스에 유채, 1985



붉은 산
24.1×33.4cm, 캔버스에 유채, 1972



전주천
33.4×53.0cm, 캔버스에 유채, 1983

1970-80년대 초 초창기 활동
1980년대 극사실주의 시기
1980-90년대 초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실주의로의 전환기
1990년대 제주 시기
2000년대 인식의 확장



한라산
197.0×290.9cm, 캔버스에 유채, 1998



생명
72.7×60.6cm, 캔버스에 유채, 2012



여수에서
31.8X40.9cm, 캔버스에 유채, 2003



생명_날개의 숲
(좌)42.0×240.0×17.0cm,
(우)45.0×264.0×7.0cm,
호미, 철용접, 2020



생명
150×2150cm, 캔버스에 유채, 2013

사생 예찬

“풍경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생명으로”

정 현(책임연구원)

사생은 동양의 문화이자 자연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나타내는 미학적 방식일 것이다. 이동근의 회화는 바로 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의 전복 화단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나아갈 길을 찾던 시기로, 당시 이동근은 극사실주의에 몰두한다. 당시 극사실주의는 단색화와 민중미술이 견인하던 주류미술계의 틈새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가 벌인 일종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이동근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풍경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주제 의식과 화풍이 자리를 잡게 된다. 1990년대 제주에서의 삶은 그간 꾸준한 사생으로 다져진 필력이 응축되어 뿜어져 나오는 시기이다. 이동근은 제주의 원시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자연환경에 매료된다. 이러한 자연과의 공명은 자연스레 인상주의적 즉흥성, 표현주의적인 심리적 충동,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순전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제주 시기는 학습된 회화의 관습에서 벗어나 세계를 표피가 아닌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꾸준한 관찰과 사생의 힘은 이후 형식에서 벗어나 조형설치, 퍼포먼스, 협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생태주의 관점으로 본 이동근 회화의 동시대성”

정 현(책임연구원)

2000년대 초, 이동근은 침잠의 시기를 가진다.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발전이라는 욕망을 쫓아갔다. 제주의 역동적인 자연에서 익숙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후, 그는 느린 속도로 풍경이 아닌 생명을 지닌 존재로 자연을 깊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는 인류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쟁점이다. 2008년 이후 이동근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상과 주변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곡점은 이미 제주 시기의 작업에서 나타났지만, 귀향 이후 비로소 만개한다. 정음 시기의 작업은 구상, 비구상, 평면, 입체, 사물과 같은 형식과 매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미시세계부터 거시세계를 오가면서 그 사이에 작가의 기억과 경험이 혼합된다. 특히 세포를 연상시키는 모티브는 작가의 관점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마이크로코스모스의 세계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작가 주요 연보

- 1951 한국 전라북도 정읍 출생.
- 1969 18세의 나이(익산고등학교 3학년)로 《제1회 전라북도미술대전》〈가을잎이 지듯이〉 작품 입상.
- 1970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기 입학.
- 1979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제11회 전라북도미술대전》〈외갓집 뒤뜰〉 작품으로 금상 수상.
- 1980 《제17회 목우회공모 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풍古風〉 작품으로 목우회 회장상 수상.
프랑스 《Le Salon SAF: 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파리 그랑팔레미술관)》에서 금상 수상.
- 1981 《제3회 신라미술대상전》 서양화 부문에서 〈결〉 작품으로 최고상 수상.
- 1982 《이동근화집(李東根畫集), 원광사, 1982.9.5.》출판. 《제1회 개인전》(전북예술회관, 전주) 개최.
- 1984 원광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춘곡 고희동의 생애와 작품세계〉라는 논문 발표.
- 1985 《제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하얀 천이 있는 정물〉 작품으로 특선 수상.
- 1988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교수 재직(1988~1994).
- 200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초대형(2,100X1,300cm) 무대막 〈소리사랑〉 작품 설치. 주)마루소라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작업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됨.
《이동근 갤러리》 개관(2001.6.29.)과 〈자연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8회 개인전(2001.7.1.~15)》(이동근갤러리, 전주) 개최
- 2003 《제7회 전북예술상》 미술 부문 수상,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스케치 여행.
- 2006 전북 정읍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 속에서의 《선들》 스튜디오로 이주(2006.2.15.).
- 2013 〈생명을 품은 목가적인 서정풍경〉이라는 《제12회 개인전(2013.10.23.~29, 인사아트센터, 서울)》을 개최함.
- 2018 캐나다 몬트리올 《Gallery VU》에서 《제14회 개인전》 개최.
- 2019 《제27회 목정문화상》 지역 문화예술진흥 공헌과 예술혼 지속 사명에 대한 미술부문 수상.
- 2020 전주현대미술관에서 〈생명〉이라는 《제15회 개인전(2020.11.6.~12.5, 이강산 기획)》을 개최.
- 2022 ARK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2022-2023 작가조사-연구-비평》〈A LIFE〉로 대표작가 선정.



1969년 원광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미술실에서의 작가의 모습. 같은 해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서 〈가을 잎이 지듯이〉라는 작품으로 입상



1980년대 작가의 작업실 '석정미술연구소'의 건물 모습 전경



프랑스 《Le Salon SAF: 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파리 그랑팔레미술관)》에서 수상했던 금상 상장 이미지



1982년 작가의 첫 개인전과 함께 출간한 〈이동근화집(李東根畫集), 원광사, 1982.9.5.〉의 표지이미지



1982년 전북일보 보도 〈재능 자랑보다는 순수성 앞서야, 무엇인가 의미있는 작품 그릴터〉, 이영모 기자, 1982.9.10



1988년 창립 30주년 목우회 미술전람회 도록 표지이미지



1980년대 야외에서 사색하는 작가의 모습 전경



2001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초대형 무대막 설치작품 〈소리사랑〉 제작 과정 전경



2020년 전주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생명(2020.11.6.~12.5, 이강산 기획)〉 개인전 전시 전경

ARKO 이동근 작가조사-연구-비평 〈A LIFE〉

Contributors 정현 미술평론가, 인화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부교수 **마이슨 리스크** 미술사학자, 미국 털리도 미술사학과 교수 **인단** 미술평론가, 중국 쓰촨미술대학교 교수

Essay & Interview Contributors 전승훈 문화기획자,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역임

Archivists 임승한 전시기획자,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윤영돈** 아키비스트, 전북도립미술관 인턴 학예사 역임 **한명희, 박치선** 사진가, A LIFE 사진기록 **Advisor** 이강산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General Planner 문재선 전시기획자,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블루아트페스타 전시감독 역임 **Design** 모비주얼